

국어의 수 관련어와 문법화

구본관(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차 례>

1. 서론
 2. 수사와 수관형사의 문법화
 3. 서수사 형성과 문법화
 4. 한자어의 도입과 고유어 수 관련어의 문법화
 5. 일수(日數) 관련어와 문법화
 6. 결론
-

【벼리】 문법화는 언어의 통시적 변화나 공시적인 변이를 바라보는 하나의 접근법이다. 본고에서는 문법화의 관점에서 국어의 수 관련어들을 자세하게 관찰하였다. 본고에서 중요하게 논의한 것은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는 문법화 중에서 탈범주화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둘째, 기수사에서 서수사를 형성하는 과정은 문법화 중에서 어휘성의 연속 변이로 논의할 수 있었다. 셋째, 한자어 수 관련어들이 우리말에 도입되면서 고유어 수 관련어들은 사용역의 축소나 분포의 축소를 보이는데, 이는 문법화로 보기는 어려워도 분포가 축소되는 다양한 양상은 문법화 이론을 포함한 통시적인 언어 변화를 확장하여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넷째, 일수를 나타내는 어휘들 역시 문법화 중에서 어휘성의 연속 변이와 어휘화, 유추적 평준화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문법화 이론에만 기대기보다는 국어 자료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어의 수 표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도 했으며, 문법화 이론을 포함한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문법화, 탈문법화, 탈범주화, 어휘성의 연속 변이, 수사

1. 서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變)’하여 ‘화(化)’하게 된다.¹⁾ 언어의 변화는 무질서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방향성이나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언어 변화의 방향성을 포착하는 틀의 하나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이다. 문법화에 대해 잘 알려진 정의는 “어휘에서 문법적인 지위로, 혹은 문법에서 더 문법적인 지위로 발전하는 것[(Kurylowicz 1975), 김진수 외 역 (2013:23)에서 재인용]”이다. 문법화 과정에는 흔히 문맥의 확장(extension), 탈의미화(desemanticization),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형태음운적인 축약(morphophonological reduction)이 나타난다. 주지하듯이 문법화는 Meillet(1912)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는 문법적 형태에 대한 통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법화는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해 기술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어휘로부터 존재하는 자질들이 통시적으로 존재하게 하거나 공식적으로 구성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김은일 외 역 1999:xvii).²⁾

이처럼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만 주목한 것이

1) 이병근(2004:8)에서는 언어의 변화를 ‘變(change)’하여 ‘化(formation)’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때 변화란 조금씩 일어나 어느 순간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을 포착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단절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2) 그리하여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는 ‘grammaticalization’와 구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범주들의 함의와 언어의 공식적 견해를 위한 의미에 초점을 두고 ‘grammaticization’을 사용하기도 한다(김은일 외 역 1999:xviii).

아니라 공시적인 구성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논의가 깊어지면서 문법화는 통시적인 변화를 기술하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언어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곧 언어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언어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지적인 관점이나 담화 내지 화용을 중시하는 관점이 문법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문법화를 비롯한 언어 변화는 “인간의 인식 세계를 반영해 준다(이성하 2016:22)”는 점에서 인지적인 관점이 주목되었으며, “문법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담화에 있다(Hopper 1991).”라고 하여 담화나 화용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문법화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문법은 없다, 문법화만 있을 뿐이다(Hopper 1991).”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법화는 문법과 동일시되어 문법 연구의 모든 측면에 주목하기도 하였다[이성하(2016:45)에서 재인용]. 결국 문법화 연구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 문화, 언어 사용자의 인지 작용이나 언어 습득 등과 같은 포괄적인 측면을 모두 관찰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문법화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문법화의 예외나 탈문법화(degrammaticalization)³⁾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도 했고, 이론적인 논쟁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보편적인 언어관으로서의 문법화를 받아들이며 개별어로서의 국어의 변화를 바라보는 논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질과 양 모두에서 그리 적지 않다. 이처럼 문법화나 탈문법화 논의가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법화의 이론의 쟁점에 대한 논의(고경재 2017), 문법화 연구 흐름에 대한 논의나 문법화 연구 현황에 대한 논의(허재영 1997, 이정애 1998, 이성하 2007) 등이 나올 정도로 국어학 연구에서 문법화 논의도 언어 연구를 위한 보편적 접근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⁴⁾

3) ‘degrammaticalization’에 대한 번역어로 ‘탈문법화’ 외에 ‘역문법화’를 사용하기도 한다. ‘탈문법화’가 방향성에 대해 다소 중립적인 어감을 가지는 것에 비해 ‘역문법화’는 조금 더 강한 방향성의 어감을 가진다. 노명희(2013)에서는 ‘antigrammaticalization’를 ‘역문법화’, ‘degrammaticalization’를 ‘탈문법화’로 번역하여 양자를 구별한다. 본고에서도 ‘degrammaticalization’의 범위를 좀 넓게 보아 번역어로 ‘탈문법화’를 사용하기로 한다.

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특정한 품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문법화의 원리의 하나인 탈범주화는 명사나 동사와 같은 대범주(major category)에서 전치사, 접속사, 조동사, 대명사 등의 소범주(minor category)로의 변화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으므로 국외의 문법화 연구는 명사와 동사의 문법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국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사나 어미가 발달한 국어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논의는 명사나 동사 혹은 형용사를 포함한 구성에서 조사나 어미로의 문법화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사의 문법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하(2016:113)에서는 문법화와 관련한 영어의 수사(numerals) 논의에 기수사나 서수사뿐만 아니라 단위를 표시하는 것들과 명사인 분류사 등도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도 단순히 기수사와 서수사뿐만 아니라 수 관형사, 수 표현의 부사적 용법, 수 표현과 같이 쓰이는 의존 명사 내지 분류사, 날짜 즉, 일수(日數)를 나타내는 표현,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 등을 포함하여 수 관련어의 문법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본고는 국어의 수 관련 어휘들의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문법화 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즉, 문법화라는 관점에서 일부 고대 국어 자료를 포함하여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에 이르는 여러 시대의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문법화라는 이론의 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어 현상에 더 초점을 두어 국어 자료를 폭넓게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런 작업은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에 대해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길이기도 하며, 동시에 문법화라는 보편적인 이론의 틀로 국어라는 개별 언어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언어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해당 언어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문법화와 같은 보편 이론의 외연이 확장되고 더 탄탄한 토대를 갖춘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

4) 특정 이론에 의한 언어 연구 동향에 대한 메타적인 연구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 관점의 연구가 어느 정도 누적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수 관련어의 탈범주화 현상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하여 명사에서 수사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수사에서 수 관형사가 형성되는 과정, 수사가 부사적인 용법이나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과정 등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기수사에서 서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화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를 문법화 내지 더 포괄적인 언어 변화의 관점에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수사를 기반으로 일수(日數)를 나타내는 명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화에 대해 살피게 될 것이다.

2. 수사와 수 관형사의 문법화

문법화에서 주요한 원리 중의 하나는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이다.⁵⁾ 이 장에서는 수사에서 수 관형사가 형성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수 관련어의 문법화, 특히 탈범주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탈범주화란 어원어가 문법소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명사, 동사와 같은 일차적 문법 범주의 특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형용사, 부사, 전치사, 후치사 등과 같은 이차적 문법 범주의 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인데, 아래와 같이 범주성의 차이에 따른 연속적인 변이의 과정을 거친다(이성하 2016:198-199).

(1) 명사/동사 > 형용사/부사 > 전후치사⁶⁾/접속사/조동사/대명사/지시사

국어의 수 관련어들 역시 문법화, 특히 탈범주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 관련어들의 탈범주화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수사의 형성에 대해

5) Hopper(1991)에서는 문법화의 원리로 총위화, 분화, 전문화, 의미 지속성, 탈범주화를 소개하고 있다[이성하(2016:185-201)에서 재인용].

6) 전후치사는 부치사(adposition)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수사는 손가락, 발가락 등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에서 발달한 경우가 많다.⁷⁾ 국어의 경우도 중세 국어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온[百]’의 경우처럼 분명하지는 않지만 명사에서 수사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없지는 않다.⁸⁾ 수사가 명사보다 어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⁹⁾는 점에서는 명사에서 수사의 변화 역시 탈범주화로 다를 수도 있지만, 수사와 명사의 어휘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수사를 명사에 포함하여 체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명사에서 수사로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탈범주화로 다루지는 않는다. (1)에서도 수사를 명사와 구별되는 범주로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사에서 수사로의 변화는 탈범주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¹⁰⁾

7) 신체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인지 언어학에서 수 표현 중 10이나 20과 같은 수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0진법의 발달 역시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성하(2016:113)에서도 10을 나타내는 말은 손가락이 셈을 하는 데에 편리한 준거점이 되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언어에서 5, 10, 20 등의 수 표현은 ‘두 손, 모든 손’ 등의 어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8) 중세 국어까지 사용되었던 ‘온[百]’은 완전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생각되는데, ‘온’의 품사는 명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기문(1998:32-33)에서는 중세 국어 ‘온’과 어원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터키어의 ‘on[+]’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을 비교 언어학적으로 같은 어휘에서 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둘 다 완전수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완전수는 세계의 다른 언어를 고려하면 명사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국어의 수사의 어원에 대해서는 추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9) 수사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경우 신체 부위라는 구체성을 가지는 명사에서 추상적인 수사로 발달하였다. 조심스럽지만 구체물이 추상물보다는 어휘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명사가 수사보다 어휘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0) 탈범주화가 대범주(major category)에서 소범주(minor category)로의 변화를 주요한 요건으로 포함한다는 점(김은일 외 역 1999:138)에서 주요 어휘 범주인 명사에서 수사로의 변화 역시 탈범주화에 포함해서 다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생성 문법의 통사론 논의에서 어휘 규칙의 좌측에 나타나는 N, V, A 등의 어휘 범주와 이를 관할하는 NP, VP, AP, S 등을 대범주로, Aux, Mod, Det 등을 소범주로 본다. 한편 생성 형태론에서는 단어 형성 규칙에서 입력부와 출력부에 참여하는 단어는 대범주로 제한된다는 대범주 제약을 제안하기도 한다. 수사는 품사 혹은 범주 분류에서 따로 설정하지 않고 명사류에 포함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아 수사를 탈범주화로 다룰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사를 명사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다른 품사로 본다면 수사가 명사보다 어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명사에서 수사로의 변화를 탈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 관련어의 탈범주화는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이다. 고대 국어의 경우 수사와 수 관형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¹¹⁾ 중세 국어의 수사 및 수 관형사를 제시하면¹²⁾ 다음과 같다(구본관 2001).¹³⁾

- (2) 가. 하나ㅎ, 둘ㅎ, 세ㅎ, 네ㅎ, 다섯, 여섯, 칠곱, 여덟, 아홉, 열ㅎ, 스물ㅎ, 열흔, 마흔, 원, 여원, 칠흔, 여든, 아흔, 온, 즈믄
나. 혼, 두, 세/석/서, 네/넉/너¹⁴⁾, 다섯/닷, 여섯/엿, 칠곱, 여덟, 아홉, 열, 열흔, 열둘/열두, 스물/스므, 열흔, 온, 즈믄

주지하듯이 현대 국어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등의 수사와 ‘한, 두, 세/석/서, 네/넉/너’의 수 관형사는 형태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물론 제한적으로 쓰이는 ‘닷, 엿’을 제외하면 ‘다섯’부터는 수사와 수 관형사가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¹⁵⁾ (2)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도 수사와 수 관형사가 형태적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

범주화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1) 고대 국어의 수사나 수 관형사 자료로는 대표적으로 향가 중 「제망매가」의 ‘一等隱’, 「도친수관음가」의 ‘二尸’, ‘千隱’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삼국사기』의 고구려 지명에서 ‘七’을 나타내는 ‘難隱’ 등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 12) 수사와 수 관형사에는 ‘흔두, 두서, 서너’ 등의 합성어도 있지만 논의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13) 본고의 논의는 국어의 수 관련어를 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어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존 논의 중에서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는다.
- 14)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수 관형사가 ‘세/석/서, 네/넉/너’가 모두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너’가 문증되지 않는다. ‘너’의 경우 ‘너모 번득흔 연 『변역박통사 상 17』’로부터 존재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다(구본관 2001).
- 15) ‘다섯, 여섯, ...’ 등이 『표준국어대사전』 등 국어사전들에서 수사와 수 관형사로 올라 있는데, 이는 품사 분류를 달리하면 수사로만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이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용법 외에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을 가진다고 해서 명사 용법 외에 관형사 용법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섯, 여섯’ 등을 수사로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수사와 수 관형사의 대비에서 중세 국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것은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ㅎ’ 발음 체언의 존재 때문에 ‘ㅎ나ㅎ, 둘ㅎ, 세ㅎ, 네ㅎ’뿐만 아니라 현대 국어에서는 수사와 수 관형사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열, 스물’의 경우도 중세 국어의 경우 ‘열ㅎ, 스물ㅎ: 열, 스물’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12’나 ‘20’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열둘/열두’, ‘스물/스무’로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열두, 스무’만 쓰이는 현대 국어와 차이가 난다.¹⁶⁾ 셋째, 현대 국어의 수 관형사 ‘세/석/서, 네/넉/너’의 경우 ‘세’나 ‘네’가 수사인 ‘셋’, ‘넷’과 완전히 다른 형태이지만 중세 국어의 경우 수 관형사 ‘세’, ‘네’는 수사 ‘세ㅎ’, ‘네ㅎ’과 ‘ㅎ’ 발음의 여부만 차이가 있어 ‘ㅎ’이 흔히 휴지 앞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와 수 관형사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수사와 형태적으로 구분되는 수 관형사의 형성이다. 수사와 수 관형사가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다섯, 여섯, 열곱, 여덟’ 등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수사로만 다루어도 되므로¹⁷⁾ 수사에서의 수 관형사로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하여 수사와 구분되는 ‘흔, 두, 세/석/서, 네/넉/너, 다섯, 열’ 등만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것이다.

수사와 수 관형사를 대비해 보면 수사에서 수 관형사가 발달할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체언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의 경우 수사에서 ‘ㅎ’이 탈락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세 국어의 관형사 ‘열둘/열두’, ‘스물/스무’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열두’, ‘스무’로만 나타나는 것은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 발달하는 과정이 중세 국어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 준다. 위에서 언급한바 수 관형사와의 차이가

16) 현대 국어에서도 방언에 따라 수 관형사가 ‘스무’가 아니라 ‘스물’이 쓰이기도 한다.

17) 주지하듯이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 있다고 해서 이를 관형사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수사가 다른 수사를 수식한다고 해서 굳이 수 관형사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는 수사와 형태가 다른 예를 주로 다루게 된다.

분명하지 않았던 수사가 ‘세ㅎ’, ‘네ㅎ’이 ‘셋, 넷’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가 분명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우리가 (1)에서 제시한 탈범주화의 범주 구분에는 관형사가 없으므로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발달이 왜 탈범주화의 사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관형사의 성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국어의 관형사는 다른 언어의 품사 범주 구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범주인데,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관사나 형용사와 관련이 있다. 굳이 영어와 비교하자면 영어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¹⁸⁾ 중에서 명사 수식 용법의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는 것이 국어의 관형사이다.¹⁹⁾ 국어의 형용사는 명사성 형용사인 영어와 달리 언어 유형론적으로 동사성 형용사이어서 (1)의 구분에서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국어의 관형사일 수 있는 것이다. 즉, (1)에서의 형용사가 국어의 형용사가 아니라 영어의 형용사를 고려한 것이라 할 때 국어 관형사는 (1)의 탈범주화 방향성에서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를 포함한 명사에 비해 탈범주화에 의한 문법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⁰⁾

우리는 앞에서 문법화가 인지적인 관점이나 담화 내지 화용의 관점을 포괄하는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 언급하였다. 수사에서 수 관형사의 탈범주화 역시 인지적인 관점이나 담화 내지 화용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 가능하다. (2)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는 합성 수사인 ‘열둘/열두’와 20을 나타내는 ‘스물/스므’를 제외하면 주로 1~6에 해당하는 작은 수에서 일어난다. 말뭉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작은 수가 사용 빈도가 높다

18) 주지하듯이 영어 형용사의 용법은 명사 등 체언을 수식하는 용법과 ‘be’ 동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는 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9) 주지하듯이 개화기의 문법가들 중에는 현재 규범 문법의 관형사를 형용사로 분류하고, 형용사를 동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20) 잘 알려진 중세 국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던 ‘새’가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 쓰이는 것도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문법화와 마찬가지로 명사 혹은 수사에서의 관형사화로의 문법화로 볼 수 있다.

는 것을 고려하면²¹⁾ 수사의 수 관형사로의 변화는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 흔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계열에서 문법화되는 단어는 문법화되지 않는 단어보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는 Heine(1994)의 ‘어원어의 고빈도 원리’[이성하(2016:226)에서 재인용]로 설명이 가능하다. 빈도가 높은 경우 음운 축소나 융합 등이 나타나 형태적으로 문법화가 일어나거나 의미적인 융합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스믈/스므’의 경우도 1~6에 비하면 큰 수이지만 10, 20, 30으로 10씩 이어지는 10진법의 단위로 보면 ‘열ㅎ’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관형사로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중세 국어에서 수 관형사로 쓰이던 형태 중에서 ‘닷, 엇’의 경우는 점차 사용이 축소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사용 빈도의 관점에서 보면 1~4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1~4보다 빈도가 작은 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는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일종의 유추적 평준화가 작용하여 다시 수사와 같은 형태가 수 관형사로 쓰이는 방향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²⁾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는 수사가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경우와 조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 분포 중에서 전자의 경우에 나타난다. 우리는 앞에서 문법화가 담화 내지 화용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문법화가 특정한 분포에서 나타나는 것 역시 특정 맥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넓게 보면 담화 내지 화용적인 관점과 통하는 바가 있다.

수 관련어의 탈범주화와 관련하여 ‘하나’ 내지 ‘하나도’가 부사처럼 쓰이는 다음의 예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수 있다.

21) 국립국어원(2005)에 따르면 수사 중 하나는 빈도수 150위, 둘은 566위, 셋은 1059위로 작은 수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다.

22) 이런 현상은 원리적으로 보면 탈문법화와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탈문법화가 형태를 기준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것임에 반해 이 경우는 어떤 어휘 공백을 다른 것이 채운다는 것이므로 같은 현상이 아님은 물론이다.

(3) 그 여자는 하나도 안 예쁘다.

(3)은 이성하(2016:195)에서 문법화의 원리 중 한 문법소가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전문화의 사례로 다룬 것이다. 위의 예에서 ‘하나’는 ‘도’와 합쳐서 부정 극어로 쓰였는데, 이성하의 논의에서는 이 경우 수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²³⁾ 국어사전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것인바 (3)의 ‘하나’를 명사로 보고 있다. 그런데 부정 극어가 주로 부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예에서 ‘하나’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수사에서 부사로의 탈범주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 물론 위의 예에서 ‘하나도’가 부정 극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하나’에 의해서만이 아닌 ‘하나’와 ‘도’의 결합에 의한 것이므로 위의 예에서 ‘하나’를 탈범주화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문법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시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공시적인 구성의 차이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에서의 ‘하나’ 내지 ‘하나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탈범주화 현상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수 관련어의 탈범주화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수 관련어의 명사 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4) ‘하나’(「명사」)의 뜻풀이

- 「1」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
- 「2」 여러 가지로 구분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
- 「3」 ((주로 ‘하나만’ 꼴로 쓰여)) ‘오직 그것뿐’의 뜻을 나타내는 말.
- 「4」 ((주로 ‘하나도’ 꼴로 쓰여 뒤에 오는 ‘없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전혀’, ‘조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 「5」 ((‘하나의’ 꼴로 쓰여)) ‘일종의’의 뜻을 나타내는 말.

23) 이성하(2016:195)에서는 (3)에서의 ‘하나’의 품사가 수사가 아니라는 점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품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부정 극어가 주로 부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사로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국어사전에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이를 명사 용법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4)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가져온 것인데, 위에서 이미 설명한 「4」의 용법을 제외하고도 ‘하나’는 명사 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수사 ‘하나’의 의미나 용법과 명사 ‘하나’의 의미나 용법을 비교해 보면 변화의 방향은 ‘수사 > 명사’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앞에서 ‘명사 > 수사’의 변화를 조심스럽지만 탈범주화로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음을 언급했다. 만일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면 ‘수사 > 명사’의 변화는 탈범주화 내지 문법화의 반대 방향의 변화, 즉 탈문법화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사에서 명사로의 변화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이는 ‘하나’가 가진 의미적 특성에 기인하는 듯하지만 ‘둘’을 비롯한 다른 수사도 이런 용법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4)의 「2」의 용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다.”인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둘’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4)의 용법을 명사로 볼 것인지, (3)의 ‘하나도’가 부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듯이 수사이면서 임시적으로 명사적인 것으로 쓰인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사가 명사로 바뀐 것으로 본다면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수사와 명사를 어휘성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보는지에 따라 통시적인 탈문법화의 예가 될 수 있고, 수사이면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역시 수사와 명사를 어휘성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본다면 공시적인 구성에서의 탈문법화의 예가 될 수 있다.

3. 서수사 형성과 문법화

문법화는 각 단계가 분절적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단일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문법화에 대한 연구의 기본 원리는 ‘연속 변이’ 개념이다 (김은일 외 역 1999:8). 연속 변이는 내용어가 문법성만을 표시하는 단계로 변하는 문법성의 연속 변이와 어휘성을 유지하는 어휘성의 연속 변이로 나눌

수 있다. 어휘성의 연속 변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이성하 2016:145).

(5) 어휘성의 연속 변이²⁴⁾

통사적 구성의 단어 > 합성어 구성 요소 > 파생 접사

국어의 서수사 파생은 (5)에서 제시한 어휘성의 연속 변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 국어의 경우 수사 관련어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구본관(2001)을 참조하여 중세 국어 기수사와 서수사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 (6) 가. ^ㅎ나^ㅎ, ^둘ㅎ, ^세ㅎ, ^네ㅎ, ^다숫, ^여숫, ^닐곱, ^여몫, ^아홉, ^열ㅎ, ^스물ㅎ, ^설흔, ^마슨, ^원, ^여원, ^닐흔, ^여든, ^아흔, ^온, ^즈문
나. *^ㅎ나차히²⁵⁾, ^둘차히, ^세차히, ^네차히, ^다숫차히, ^여숫차히, ^닐곱차히 ... ^열차히, ^열ㅎ나차히, ^열둘차히 ... ^스물차히, ^설흔차히 ... ^여든차히『월인석보 2:55-59』

- (7) 가. ^ㅎ날재『소학언해 5:100』, ^둘재『번역소학 8:21』, ^다숫재『번역소학 8:23』, ^여숫재『번역소학 8:21』, ^닐곱재『번역소학 8:21』
나. ^둘채『원각경언해 3-2:83』
다. ^다차『능엄경언해 7:23』, ^세차『금강경삼가해 2:33』, ^네차『석보상절 6:36』, ^여숫차『석보상절 6:1』, ^닐곱차『석보상절 6:11』
라. ^둘짜『남명집언해 하:1』, ^네짜『남명집언해 상:1』

24) 이성하(2016:145)에서 제시한 어휘성의 연속 변이는 ‘통사적 구조 > 합성어 > 파생 접사’이지만 이어지는 예를 보면 단일 단어 ‘full’이 ‘cupful’에서처럼 합성어의 어근으로 나타나는 예와 ‘hopeful’에서처럼 파생 접사로 나타나는 예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통사적 구성의 단어 > 합성어의 구성 요소(어근) > 파생 접사’로 제시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로 보인다.

25) 『월인석보 2』에서는 ‘^ㅎ나차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에 ‘첫 相상’, ‘못 처엄’ 등이 나타난다. 이 문헌에 *^ㅎ나차히가 문증되지 않지만 ‘^열ㅎ나차히, ^스물ㅎ나차히’가 존재함을 고려하면 중세 국어에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가)는 앞에서 언급한바 중세 국어의 기수사이고, (6나)는 이에 대응되는 서수사이다. (6가)와 (6나)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수사는 기수사에 ‘-차히’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수사를 만드는 것에는 ‘-차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히’처럼 규칙적이지는 않으나 (7)에서 볼 수 있듯이 ‘-재, -채, -차, -짜(자)’가 더 있다.²⁶⁾ ‘-차히’가 ‘흐나ㅎ, 둘ㅎ, 세ㅎ, 네ㅎ’ 등에 있는 ‘ㅎ’ 말음의 영향이라면 원래 ‘-자히’가 결합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다숫, 여숫, 널 굽, 여듭, 아홉’처럼 ‘ㅎ’ 말음이 없는 경우에도 ‘-자히’가 아니라 ‘-차히’가 나타나는데, 이는 유추적 평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구본관 2001). 즉, ‘-차히’는 원래 ‘ㅎ’ 종성을 가지는 수사에만 결합하다가 나머지 경우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재’나 ‘-채’는 ‘-자히’ 내지 ‘-차히’에서 모음 간에 ‘ㅎ’이 약화되면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서수사 형성을 문법화의 관점, 특히 어휘성의 연속 변이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우선 ‘-차히’나 ‘-재, -채, -차, -짜(자)’와 같은 파생 접미사의 형성은 (5)에서와 같은 어휘성의 연속 변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허용(1975:227, 296)에서는 서수사 형성 접미사가 의존 명사인 ‘자히’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8) 가. 물 톤 자히 건너시니이다 『용비어천가 34장』

나. 龍王堀에 안존 자히 겨샤되 『월인석보 7:52』

(9) 가. 두서히자히 『월인석보 1:6』

나. 온뉘짜히 『월인석보 2:2』

26) ‘-차, -짜(자)’는 주로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챗, -짖(жат)’으로 실현되므로 안병화·허경(1992:3)에서는 ‘-챗, -짖’을 파생 접미사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구본관(2001)에서는 ‘-차, -짜’와 유사한 ‘-채’의 경우 ‘둘채 사람 『원각경언해 하 3-2:83』’, ‘둘 챗 가줄비샤물 『원각경언해 상 1-2:179-180』’처럼 ‘ㅅ’이 결합한 형태와 결합하지 않은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차, 짜(жат)’도 ‘ㅅ’이 없는 형태를 파생 접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10) 가. 두서 헛자히 『월인석보 1:6』

나. 온 뉘짜히 『월인석보 2:2』

(8)의 예들은 ‘자히’가 관형사형 뒤에 나타나 의존 명사로 쓰였음을 보여 준다. (9)는 허웅(1975:227)에서 (6나), (7)과 같은 전형적인 서수사의 예들과 함께 서수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예로 제시한 것들이다. 하지만 본고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서수사가 아니라 ‘수사 + 의존 명사’의 통사 구성이며 띄어쓰기도 (10)처럼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10)의 예가 복합어는 아니지만 통사적 구조에서 파생 접사를 가진 구조로 문법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례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9)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결합하는 ‘-째’와 ‘첫째, 둘째, 셋째’ 등에 사용된 서수사를 만드는 ‘-째’를 하나의 파생 접미사로 설명하고 있으나²⁷⁾ 사실 (9)나 (10)의 ‘자히’, ‘짜히’를 서수사 파생 접미사로 보기 어렵다.²⁸⁾ 서수사 파생으로의 문법화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는 오히려 (7)이나 (6나)와 같은 예들이다. (7)의 예들을 파생어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 파생어 구성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7)은 기수사에 ‘자히’ 등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ㅎ’ 발음이 반영되기도 하고 다양한 표기형이 나타나는 등 완전한 파생어의 양상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생어 구성으로 진행이 완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5)의 어휘성의 연속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7)은 (6

27) -째2 「접사」 ((수량,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와 수사 뒤에 붙어))

「1」 ‘차례’나 ‘등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몇째. 두 잔째.

「2」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사흘째. 다섯 달째.

2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째’에 대해 “((수량,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와 수사 뒤에 붙어)) 「1」 ‘차례’나 ‘등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풀이하고 있다. 수사 뒤에 붙는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간에 결합하는 ‘-째’와 서수사를 파생하는 ‘-째’를 동일한 파생 접미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원적으로 동일하지만 서수사 파생의 독자성을 고려하면 둘을 구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나)와 구별하여 파생어로의 변화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 즉 합성어 구성의 단계에서 파생어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²⁹⁾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 접미사로 더 나아간 것을 보여 주는 예가 (6나)가 아닌가 한다. 문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제의 하나는 재분석(analysis)이며, 재분석은 기저 표상을 수정하고 규칙 변화를 초래한다(김은일 외 역 1999:43). 유추(analogy)는 통일성을 부여하기 용이하며(김은일 외 역 1999:50), 이런 유추 역시 문법화의 중요한 기제이다. (6나)의 ‘-차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먼저 ‘ㅎ’ 발음을 가진 기수사에 ‘자히’가 결합한 합성어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런 다음 재분석을 통해 ‘ㅎ’이 ‘자히’와 결합한 ‘차히’로 재분석되어 ‘기수사 + -차히’의 파생 접미사를 가진 형태 구성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히’가 ‘ㅎ’ 발음을 가지지 않는 기수사와도 결합하는 유추에 의한 평준화가 일어난다. 파생 접미사가 되면서 이형태가 단순화되고, 재분석을 통해 유추적 평준화를 경험하여 ‘-차히’가 되면 파생 접미사화가 굳건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대 국어의 경우 ‘-차히’가 아니라 ‘-째’로 통일되어 나타나는데, 이 역시 형태적으로 단순화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파생 접미사가 공고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세 국어 이후 ‘-차히’나 ‘-재, -채, -차, -짜(자)’가 현대 국어에 ‘-째’로 통일되는 양상은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서수사 파생의 어휘성의 연속 변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 가. 통사적 구조 단계: 의존 명사 ‘자히’가 기수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쓰이는 단계

29) 물론 ‘-차히’를 가진 구성이 ‘-재, -채, -차, -짜(자)’를 가진 구성보다 파생어 구성을 보인다는 것이 반드시 시기적으로 ‘-차히’를 가진 구성이 반드시 ‘-재, -채, -차, -짜(자)’를 가진 구성보다 후대형이라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통시적 변화의 과정에서 개별 어휘나 어휘 부류는 다양한 단계를 보인다.

- 나. 합성어 단계: 의존 명사 ‘자히’가 기수사와 결합하여 ‘ㅎ’ 발음이
‘기수사+차히’로 나타나는 단계
- 다. 파생어 단계: 재분석과 유추적 평준화를 거쳐 ‘-차히’가 파생 접
미사로 분석되는 단계

(11)의 단계는 임의적인 구분이다.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이론적인 가정이
지 각 단계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이미 앞에서 문법화가 연
속적이지 분절적이지 않다고 설명한 바와 같다.

문법화의 단일 방향성에 참여하는 몇 가지 과정 중에는 분기(divergence)
가 있다.³⁰⁾ 서수사의 파생을 문법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분기의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분기란 어휘적 형태가 문법화의 과정을 겪어 접
어나 접사로 바뀔 때 원래 형태는 자립적인 요소로 남아 보통 어휘 항목과
동일한 변화를 겪는 현상을 말한다[Hopper(1991:2), 김은일 외 역
(1999:154)에서 재인용]. 중세 국어의 의존 명사 ‘자히’는 어휘화 과정에서 ‘-
차히’나 ‘-재, -채, -차, -짜(자)’를 거쳐 현대 한국어에서 ‘-째’로 발달한다. 이
와 달리 의존 명사로서의 용법은 근대 한국어에서 ‘재’ 거쳐 현대 한국어에서 ‘채’
로 이어진다.

(12) 가. 창 잡은 재 섬 얹히 서시니 『삼역총해 1:13』

나. 머근 재 줌을 드러 『청구영언 원 45』

(12)는 ‘자히’가 ‘재’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현대 국어의 의존 명사
‘채’는 이 ‘재’에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되나 ‘재’에서 ‘채’로의 직접적인 변화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서수사 형성과 문법화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에 대해 더
언급해 두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서수사 중에서 가장 특이한 변화를 보이는

30) ‘divergence’의 번역어로 김은일 외 역(1999:154)에서는 ‘분기’를, 이성하(2016:190)에서
는 ‘분화’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것이 중세 국어에서 ‘*ᄒ나차히, ᄒ날재 『소학언해 5:100』, ᄒ날재 『소학언해 5:16』’ 등으로 나타나다가 근대 국어에 이르러 ‘첫재 『한청문감 4:27』’로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는 흔히 보충법(suppletion)으로 설명해 왔다. 앞에서 언급한바 수사에서 수 관형사의 탈범주화와 마찬가지로 보충법도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어의 서수사 파생에서 보충법이 1~3인 ‘first, second, third’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국어에서 1인 첫째(<첫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 보충법이 나타나면 인지적으로 기억의 부담이 커지므로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나 규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보충법이 유지되기 어렵다. 보충법이 탈범주화와 같은 문법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에서 나타나는 것은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어떤 변화는 인지적으로 기억의 부담을 주므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 유지되는 경향이 높다는 공통점과 관련이 있다.

‘ᄒ나차히’ 대신에 보충법 형태인 ‘첫재’가 나타나는 것은 문법화에서의 재건(renewal)을 떠올리게 한다. 재건은 순환(recurrence), 주기성(cyclicity), 혁신(renovation)과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데, 이는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문법소가 의미가 점점 약화되면서 표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좀 더 표현력이 강한 문법소로 대체되는 현상을 지칭한다(이성하 2016:226). ‘첫재’ 역시 표현력이 강한 요소라는 점에서 재건과 닮아 있다. 그러나 재건은 새로 도입되는 것이 문법 형태일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고 그 형태가 우연적인 통사 구성인 경우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첫재’로의 대체와 차이가 있어 재건으로 보기 어렵다.

4. 한자어의 도입과 고유어 수 관련어의 문법화

문법화가 진행되게 되면 문법소는 의미, 음운이나 형태, 범주 등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하여 특정 언어 형태는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분포 내지 사용되는 환경이 점점 좁아진다(이성하 2016:176).³¹⁾ 예를 들어 앞

에서 언급한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는 음운이나 형태가 축소되기도 하고 범주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 것이기도 하지만, 수사가 가지는 분포 내지 사용되는 환경이 체언 앞에서만 나타나는 환경으로 좁아진 것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 다루려는 것은 국어에서 수를 나타내는 한자어 수 표현의 도입에 따라 고유어 수 표현의 사용 환경이 좁아지는 현상에 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정 형태소가 어휘적인 속성을 잃고 문법적인 속성을 얻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문법화의 예가 아님은 물론이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화를 비롯한 통시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듯이 국어는 기수사든 서수사든 고유어와 한자어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다음은 현대 국어의 수사의 예이다.³²⁾

(13)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아흔아홉

나. 일(一), 이(二), 삼(三), 사(四), 오(五), 육(六), 칠(七), 팔(八), 구(九), 십(十), 이십(二十), 삼십(三十), 사십(四十), 오십(五十), 육십(六十), 칠십(七十), 팔십(八十), 구십(九十), 구십구(九十九), 백(百), 천(千)

(14) 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 열째, 열한째, 스무째

나. 제일(第一), 제이(第二), 제삼(第三), 제사(第四) ... 제십(第十), 제십일(第十一), 제이십(第二十)

31) 우리는 앞에서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탈의미화, 탈범주화, 형태음운적 축약 외에 문맥 확장이 일어남을 언급하였다. 문법화가 일어나면 어휘적 형태소가 문맥이 확장되기도 하지만 한편 명사나 동사에서 조사로의 변화나 본고에서 논의한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분포나 사용 환경이 좁아지기도 한다.

32) 한국인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의 하나로 한국어 수 표현이 십진법에 충실하기 때문이라는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 장에서 언급할 것인바, 한국어의 수 표현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양립하고 있으며 사용역이나 분포 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13)은 기수사로 (13가)는 고유어, (13나)는 한자어이다. 고유어 기수사는 가장 큰 수가 아흔아홉이고, 백(百)보다 큰 수는 한자어이거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혼합이다. (14)는 서수사로 (14가)는 고유어, (14나)는 한자어이다. 도상성의 원리³³⁾에 따라 기수사가 서수사가 되면 형태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유어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뒤에 ‘-째’가 결합하고 한자어의 경우 앞에 ‘제(第)-’가 결합한다.

한자어가 한자나 한문 등을 배경으로 하여 후대에 우리말에 들어왔음을 생각하면 고유어 수사가 먼저 존재했고, 여기에 한자어 수사가 더해졌을 것이라는 당연한 추정이 가능하다. 한자어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는 경쟁 관계에 놓였을 것이다. 중세 국어에 쓰이던 ‘되ᄃᆞ, ㄱᄃᆞ, 아ᄃᆞ’ 등이 근대 국어로 오면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한자어 ‘산(山), 강(江), 친척(親戚)’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지듯이 수 관련어에서도 이런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국어에서 백(百)보다 큰 수는 모두 한자어이거나 한자어와 고유어의 혼합인 것도 고유어가 한자어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결과이다. 주지하듯이 ‘백(百)’, ‘천(千)’에 해당하는 고유어 ‘온’, ‘즈믄’은 『훈몽자회』까지는 많이 나타났지만, 16세기 말 이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이기문 1998:180).

한자어 수사와의 경쟁에서 고유어 수사가 밀려나는 현상은 조금 더 흥미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문법화와 관련되는 통시적인 변화로 설명하려 한다.

(15) 가. 일 더하기 일는 이/?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나. 감 하나에 얼마나?/*감 일에 얼마나?

33) 주지하듯이 도상성(iconicity)은 기호학에서 형식상의 특성이 내용상의 특성을 재현하는 것을 지칭한다. 언어학에서는 형식인 음성의 복잡성과 내용인 의미의 복잡성이 일치하는 특성을 도상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 (16) 가. 옷 5벌[옷 다섯벌], 소 2마리[소 두 마리]
 나. 2킬로그램[이킬로그램/*두킬로그램], 5톤[오톤/*다섯톤]
 다. 사과 1개[사과 한 개], 술 5잔[술 다섯잔]
 라. 1시 1분 1초[한시 일분 일초]
 마. 배 1척[*배 일척/배 한척], 배 20척[배 스무척/배 이십척]

(15)와 (16)은 고영근·구본관(2018:80-81)을 수정해서 가져온 것으로 이런 논의는 국어 문법서들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15)를 통해서 우리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역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수학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한자어가 자연스럽고 일상어의 영역에서는 고유어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원[일원/*한원]’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의 단위에서 한자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도 사용역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³⁴⁾

(16)은 고유어를 사용할 것인지 한자어를 사용할 것인지의 선택에 후행하는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준다. (16가)처럼 고유어가 뒤에 오면 고유어를 사용하고, (16나)처럼 외래어가 뒤에 오면 한자어를 사용한다. 한자어가 뒤에 오는 경우는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뒤에 오는 요소가 오랫동안 쓰여 고유어처럼 인식되는 경우에는 (16다)와 (16라)의 ‘[한시]’처럼 고유어가 쓰이지만, (16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분], [일초]’처럼 비교적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한자어가 뒤에 오면 한자어가 쓰인다. 이는 인지적으로 보면 실제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여부보다 한자어와 고유어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이 고유어 수 표현과 한자어 수 표현의 선택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자어 수사와 고유어 수사의 사용 양상에 대해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일한 사용 환경이라 하더라도 (16마)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수에서는 한자어보다 고유어가 더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우리는 나이를 셀 때 의 존 명사 ‘살’ 앞에서 혹은 단독으로 쓰일 때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를 모

34) 물론 예전의 화폐 단위인 ‘푼, 전’의 경우 ‘1푼[한푼]’처럼 고유어 수사가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두 사용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자어 수사가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³⁵⁾

- (17) 10(살)[열(살)/^{*}십(살)], 20(살)[스무(살)/이십(살)], 30(살)[서른(살)/삼십(살)], 40(살)[마흔(살)/사십(살)], 50(살)[쉰(살)/오십(살)], 60(살)[예순(살)/육십(살)], 70(살)[일흔(살)/칠십(살)], 80(살)[여든(살)/팔십(살)], 90(살)[아흔(살)/구십(살)]

(17)에서 알 수 있듯이 10(살)[열(살)/^{*}십(살)]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어와 한자어가 모두 가능하지만 20살, 30살처럼 작은 수의 경우는 고유어가 좀 더 자연스럽고 뒤로 갈수록 한자어가 좀 더 자연스럽다.³⁶⁾ 최근에는 환갑을 나타내는 나이도 ‘[예순하나]’보다 ‘[육십하나]’로 표현하는 경우를 흔히 듣는다. 자연스러운 정도의 판단은 화자에 따라 다른데, 화자의 연령, 방언권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젊은 세대의 언어 사용에서는 ‘일흔, 여든, 아흔’이라는 나이 표현을 거의 듣기 어렵고, ‘칠십, 팔십, 구십’이 흔히 사용된다. 작은 수에 비해 큰 수에서 한자어가 우세하게 쓰이는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온’, ‘즈믄’이 경쟁에서 밀려난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어에서 수 관련어의 체계는 고유어가 새로 들어온 한자어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원래 존재하던 고유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영역에서 잘 쓰이지 않음으로써 사용역이 축소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뒤에 오는 어휘가 외래어일 경우 잘 사용되지 않으며, 한자어일 경우도 익숙한 한자어가 아니면 고유어 수 관련어가 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배 1척[^{*}배일척/배한척]’의 예

35) 주지하듯이 ‘살’은 고유어와 주로 사용되고, ‘세(歲)’는 한자어와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살’ 앞에서도 한자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36) 주지하듯이 고유어 ‘살’에 대응하는 ‘세’의 경우는 앞에 오는 숫자는 모두 한자어로 읽힌다.

나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수에서는 잘 사용되지만 큰 수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한자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대에 따라 고유어 사용 양상이 차이 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진행 중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우리는 앞에서의 논의를 통해 문법화가 탈의미화, 탈범주화, 형태음운적 축약과 같은 의미, 형태나 음운, 범주 등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분포 내지 사용되는 환경이 좁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고유어 수사의 제한과 소멸은 국어 어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어휘 형태가 문법 형태로 변화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문법화로 보기는 어렵지만, 넓은 의미에서 문법화가 분포의 축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어의 도입에 따라 분포가 축소되고 형태가 소멸되는 현상을 이 자리에서 함께 다루어 두기로 한다. 앞으로 문법화를 포함한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론화하여 다루게 된다면 이와 같은 분포의 축소의 다양한 양상은 문법화 이론을 포함한 통시적인 언어 변화를 새로운 이론으로 확장하여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일수(日數) 관련어와 문법화

‘하루, 이틀’ 등과 같은 일수는 넓은 의미에서 수 관련어로 볼 수 있다. 고영근(2020:88-89)에서는 일수 표현이 명사이지만 수사에 넣어 다룰 수 있다고 하면서 중세 국어의 일수 표현을 (18가)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8) 가. 흐르, 이틀, 사을, 나을, 닛췌, 엿췌, 닐웨, 여드래, 아흐래, 열흘
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닛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

위에서 제시한 일수 어휘들은 ‘닛췌, 엿췌, 닐웨, 여드래, 아흐래, 열흘’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 혹은 수 관형사를 구성 요소로 가지는 복합어들로 보인다.

일수 표현의 어원적인 분석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이기문(1991:82-84)

이다.³⁷⁾ 이기문(1991)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수의 형태 분석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흐ㄹ’는 휴지 또는 자음 앞에서는 ‘흐ㄹ’, 모음 앞에서는 ‘홀리, 홀릴’에서 볼 수 있듯이 ‘홀ㄹ’로 나타나 중세 국어 이전 형태를 ‘*홀’로 재구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제망매가」의 ‘一等隱’이나 『계림유사』의 ‘一曰河屯’을 고려하면 ‘*홀 + -을’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파생 접미사 ‘-을/을’을 분석해 내면 ‘이틀’은 ‘일 + -을’로 분석이 가능하고³⁸⁾ ‘사을’, ‘나을’은 ‘서’, ‘너’에서 모음 변화를 일으킨 ‘사’, ‘나’에 ‘-을’이 붙은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열흘’이 ‘열ㅎ + -을’로 분석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닷췌, 엿췌, 닐췌, 여드래, 아흐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수를 나타내는 어근과 ‘-췌(췌), -애(래)’ 등의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 생각된다.³⁹⁾

(18나)에서 볼 수 있듯이 일수 표현은 현대 국어로 이어지면서 약간의 형태적인 변화를 보인다. ‘흐ㄹ ~ 홀ㄹ’의 특별한 곡용(曲用)이 사라지고 ‘하루’로 고정되었으며, ‘사을, 나을’은 ‘열흘’과 마찬가지로 ‘ㅎ’을 가지는 ‘사흘, 나흘’로 바뀌었다. ‘닐췌, 여드래, 아흐래’의 모음이 모두 ‘ㄴ’로 바뀐 것도 작은 변화이다.

일수 어휘들의 형성 역시 수사나 수 관형사가 결합한 것으로 문법화의 관점에서 앞에서 (5)로 언급한 어휘성의 연속 변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일수는 뒤에 나타나는 요소에 따라 크게 ‘-을/을’을 가지는 ‘흐ㄹ, 이틀, 사을, 나을, 열흘’과 ‘-췌(췌), -애(래)’를 가지는 ‘닷췌, 엿췌, 닐췌, 여드래, 아흐래’로 나눌 수 있다. 뒤에 오는 파생 접미사 ‘-을/을’이나 ‘-췌(췌), -애(래)’가 어디에

37)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국어의 수 관련어를 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어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존 논의 중에서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일수 표현에 대해서는 이기문(1991) 외에 믿을 만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주로 이 논의를 활용하기로 한다.

38) 이기문(1991:83)에서는 ‘일’은 ‘일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39) 지금으로서는 ‘닷췌, 엿췌, 닐췌, 여드래, 아흐래’의 구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워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파생 접미사가 어근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⁴⁰⁾ 일수 어휘는 ‘통사적 구성의 단어 > 합성어 구성 요소> 파생 접사’의 어휘성의 연속 변이를 거친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 국어로 오면서 ‘하루, 이틀’은 ‘-을/을’이 결합한 파생어로의 분석이 어려워지게 되어 문법화 이론에서 말하는 ‘단일어화’ 내지 ‘어휘화(lexicalization)’⁴¹⁾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사을, 나을’이 ‘사흘, 나흘’이 된 것은 앞에서 ‘-차히’가 그러하듯 문법화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열ㅎ + -을’이 ‘열 + -홀’로 ‘재분석’이 되고, 이어서 ‘유추적인 평준화’가 일어나 ‘사흘, 나흘’에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⁴²⁾ ‘여드래, 아흐래’가 ‘여드레, 아흐레’로 모음이 바뀌어 ‘-에’로 통일된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유추적인 평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³⁾

40) 일수 어휘에 사용되는 ‘-을/을’의 기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일수 어휘의 의미를 고려하다면 수사와 일을 나타내는 명사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41) 어휘화(lexicalization)는 복합어가 통시적인 변화에 의해 단일어로 변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어휘부 규칙에 의해 어휘부의 항목이 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는 등 국어학 연구들에서 이론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김진수 외 역(2013:28-31)에서는 Brinton & Traugott(2005:32)를 인용하여 문법화 이론의 관점에서 어휘화를 단어 형성에 의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융합에 의해 간단한 구조가 되는 과정, 자립성이 증가하는 과정 등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단어 형성에 의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휘 항목이 되는 과정에 속하고, 융합에 의해 간단한 구조가 되는 과정은 단일어화에 가까우며, 자립성이 증가하는 과정은 탈문법화에 가깝다. ‘하루’, ‘이틀’은 이런 관점에서는 단일어화에 가깝다.

42) 현대 국어에서 ‘ㅎ’이 추가된 것은 ‘많이[마니]’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사이에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거의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세 국어라면 모음 사이에 ‘ㅎ’이 있는지 없는지가 발음에 의해 뚜렷이 구분되지만 현대 국어로 오면서 ‘ㅎ’ 약화가 보편화되었으므로 표기상 ‘ㅎ’이 사라지기도 하고, 반대로 추가되기도 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구개음화의 반작용에 의해 역구개음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

43) ‘여드레, 아흐래’는 어근과 파생 접미사로 분석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런 경우는 파생 접미사가 유추적 평준화를 경험했다기보다 ‘여드레, 아흐래’ 어휘 전체가 유추적 평준화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문법화는 국어의 통시적 변화나 공시적인 변이를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법화의 눈으로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변화, 기수사에서 서수사로의 파생, 한자어 수사의 유입에 의한 고유어 수사의 변화, 일수 관련 어휘의 형성 등 다양한 국어 현상을 살펴보았다.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론적인 틀에 국어 자료를 끼어 맞추는 것을 피하고 이론이 자료를 더 잘 바라보는 수단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료에 더 충실한 논의가 오히려 보편 이론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 이론의 외연을 확장하는 길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수사에서 수 관형사의 변화를 탈범주화로 설명하였으며, 수사의 부사적 용법을 문법화 중 탈범주화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수사의 명사적 용법을 탈문법화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서수사의 형성을 통사적 구조에서 합성어를 거쳐 파생어가 되는 어휘성의 연속 변이로 다루었다. 또한 한자어 수 표현의 도입에 따른 고유어 수 표현에 나타나는 사용역의 축소나 분포의 축소 역시 문법화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문법화가 흔히 그러하듯이 사용역의 축소나 분포의 축소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법화를 다루는 자리에서 같이 언급하였으며, 문법화를 포함하여 통시적인 언어 변화를 새로운 이론으로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사나 수 관형사에 대한 논의에 더하여 일수를 나타내는 표현의 형성을 어휘성의 연속 변이와 어휘화, 그리고 유추적 평준화의 관점에서 다루기도 하였다.

본고의 논의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만 한 것도 있었지만 새롭게 밝힌 것들도 없지 않다. 수사에서 수 관형사로의 발달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사용 빈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수사의 부사적 용법이나 명사적 용법에 대해 문법화나 탈문법화의 관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논의한 점, 서수사의 형성 과정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연속적

인 구조로 파악한 점, 한자어 수사의 유입에 따른 고유어 수사의 사용역 축소나 큰 수에서부터 점차 사용이 제한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문법화를 포함한 더 넓은 관점에서의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의 이론화와 관련하여 논의한 점 등은 국어의 수 표현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 국어의 수 표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논의한 것처럼 문법화를 비롯한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는 사용역의 축소나 제한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포괄하는 통시적인 언어 변화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고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는 수 관련어의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어 어원이나 어휘사에 대한 믿음직한 연구가 더 심화될 날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어원이나 어휘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개별 연구로서의 국어 연구가 보편 이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수 표현을 비롯한 국어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문법화 관련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보편 이론으로서의 문법화를 더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 고경재(2017), 「문법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우리말글』 74, 우리말 글학회, 1-38.
- 고영근(2020), 『제4판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2001), 「수사와 수관형사의 형태론」, 『형태론』 3-2, 형태론 편집위원회, 265-284.
- 국립국어원(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김유범(2003),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와 문법화」,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39-64.
- 김주식 역(2006), 『문법화의 본질』, 한국문화사.
- 노명희(2013), 「국어의 탈문법화 현상과 단어화」, 『국어학』 67, 국어학회, 107-143.
- 안병화·허경(1992), 『국어문법론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양영희(2016), 「현대 국어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고찰」, 『국어문학』 62, 국어문학회, 5-28.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병근(2004), 『어휘사』, 태학사.
- 이성하(2007), 「문법화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1, 우리말학회, 35-50.
- 이성하(2016), 『개정판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정애(1998), 「국어학: 문법화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흐름」, 『한국언어문학』 40, 한국언어문학회, 149-169.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허재영(1997), 「우리말 문법화 연구의 흐름」,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197-217.
- Brinton, L. J. & Traugott, E. C.(2005), *Lexicalization and Languag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ne, B.(1994),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Handout for 1992 Stanford/Berkeley Grammaticalization Workshop.
- Hopper, P. J.(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E. C. & Heine, B. (eds.), *Approches to Grammaticalization*, 2 vols., vol. 1: 17-35, Amsterdam: John Benjamins.

- Hopper P. J. & Traugott E. C.(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김은일·박기성·채영희 역(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 Kuryłowicz, J.(197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Coseriu, E. (eds.) *Esquisses Linguistique II*, 38-54, Munich: Fink.
- Meillet, A.(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Reprinted in Meillet, 1948,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énérale*, 1, 130-148, Paris: Edouard Champion.
- Norde, M.(2009), *Degrammatic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김진수박미자·이숙의·이연옥 역(2013), 『탈문법화』, 역락.)

구본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전공 교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4079
bonmorph@snu.ac.kr

접수 일자: 2022년 6월 23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19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7월 22일

<Abstract>

Number-related Vocabularies and Grammaticalization of Korean Language

Koo, Bon-Kwan(Seoul National Univ.)

Grammaticalization is an approach to look at diachronic changes or synchronic variations of language. In this paper, number-related vocabularies of Korean language were observ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grammaticalization. What were importantly discussed in this paper are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First, changes from numerals to numeric determinatives could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decategorialization out of grammaticalization. Second, the process through which ordinal numerals are formed from cardinal numerals could be discussed as continuous variations in lexicality out of grammaticalization. Third, as Sino-Korean word number related vocabularies were introduced into Korean language, native word number related vocabularies show a reduction in the register or distribution, and it could be treated as a phenomenon related to grammaticalization in a broad sense. Fourth, vocabularies representing the number of days could also be dealt with in terms of continuous variations in lexicality, lexicalization, and analogical equalization out of grammaticalization. In this paper,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the Korean language materials were more importantly dealt with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grammaticalization theory. Through the foregoing, the recognition of number expression in Korean language was renewed, and the extension of the grammaticalization theory was expanded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theory equipped with a solid foundation.

* Key words: grammaticalization, degrammaticalization, decategorialization, continuous variations in lexicality, numerals